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년 2월
석사학위 논문

부,모의 놀이성과 놀이참여시간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임 시 형

부,모의 놀이성과 놀이참여시간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arent's playfulness and participation time
about their children's playing on their children's playfulness

2017년 2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임 시 형

부,모의 놀이성과 놀이참여시간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오 지 현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임 시 형

임시형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정승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권해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오지현 (인)

2016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 연구문제	5

II. 이론적 배경

A. 유아 놀이성	6
B. 유아 놀이성과 부모 놀이성	8
C. 부모 놀이성과 놀이참여시간	12
D. 부모 놀이성, 유아 놀이성, 부모의 놀이참여시간 간의 관계	12

III.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15
B. 측정 도구	15
1. 유아 놀이성 척도	15
2. 부모 놀이성 척도	16
3. 부모 놀이참여시간	17
C. 연구 절차	18
D. 분석 방법	19

IV. 연구 결과

A. 기술통계	20
1. 인구학적 정보의 빈도 분석	20
a. 유아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자료	20
b. 부모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자료	20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21
3. 상관관계 분석	23
a. 아버지 놀이성, 아버지 놀이참여시간, 유아 놀이성의 상관관계·	23
b. 어머니 놀이성, 어머니 놀이참여시간, 유아 놀이성의 상관관계·	25
B. 부,모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27
1. 아버지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27
2. 어머니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28
C. 부,모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놀이참여시간의 조절효과	29
1. 아버지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 놀이참여시간의 조절효과	30
2. 어머니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놀이참여시간의 조절효과	31

V. 결론 및 제언

A.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33
B. 제언	36
참고문헌	38
부 록	44

표 목 차

<표 1> 유아 놀이성의 각 영역에 대한 문항구성과 신뢰도계수	16
<표 2> 부모 놀이성의 각 영역에 대한 문항구성과 신뢰도계수	17
<표 3> 연구대상 유아의 분포	20
<표 4> 연구대상 부·모의 일반적 특성 및 빈도	21
<표 5>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22
<표 6> 부 놀이성, 부 놀이참여시간, 유아 놀이성의 상관관계	24
<표 7> 모 놀이성, 모 놀이참여시간, 유아 놀이성의 상관관계	26
<표 8> 부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27
<표 9> 모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28
<표 10> 부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놀이참여시간의 조절효과	30
<표 11> 모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놀이참여시간의 조절효과	31

도 목 차

<모형1> 부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놀이참여시간의 조절 효과	5
<모형2> 모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놀이참여시간의 조절 효과	5
<그림1> 모 놀이성과 놀이참여시간의 상호작용 효과	32

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s playfulness and participation time about their children's playing on their children's playfulness

Lim Shee Hyeong.

Advisor : Prof. Oh Ji-Hyun, Ph.D.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arent's playfulness and participation time about their children's playing on their children's playfulnes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mprised 302 children and their parents. The parent's completed questionnaires on their playfulness, participation time, and their children's playfulness. Data were analyzed by SPSS statistics 21.0 program. It was found that mother's participation time of their children's playing had a moderating effect on incoherent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layfulness and their children's playfulness. On the other hand, father's participation time of their children's playing had not a moderating effect on incoherent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layfulness and their children's playfulness.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에게 있어 놀이는 생활이자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놀이는 유아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그들의 세계를 알 수 있는 독특한 방법(Isenberg & Quisenberry, 1998, 재인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아들은 놀이 안에서 각자마다 다른 생각과 느낌, 감정, 각기 다른 유형의 놀이, 상호작용, 또래관계 형성 방식을 보이는데 이러한 놀이에서의 개인차는 많은 학자들(Bruner, 1991; Lieberman, 1965, 1977; Rogers, 1988)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이는 놀이에 대한 성향인 놀이성에서 기인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린다(부정민, 김진선, 2009).

놀이성이란 내적인 성격특성을 일컫는 심리학적 구인으로 행동을 일으키는 성향(김기순, 박인진, 2002)이고, 자신이 하는 활동을 재미있게 생각하거나 활동에 참여해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성향이자(Glynn & Webster, 1992, 재인용), 외적으로 드러나는 놀이에 대한 태도(김영희, 1995, 재인용)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Barnett(1991)은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의 5가지 요소로 놀이성을 구성하였고 나아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놀이성은 유아 발달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구체적으로 유아 놀이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능력(우수경, 2013), 창의성(박상선, 서현아, 2014; 이은희, 김수향, 2016; 전일우, 2009), 정서지능(김영희, 2013; 최미숙 등, 2013 최옥현, 2009), 자기조절능력(이희선, 김소영, 2013) 또래 유능성(이상은, 2010)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아 발달에 있어 놀이성은 인지, 정서,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국내에서는 유아 놀이성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들이 선행되어왔다. 유아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탐색결과 부모의 놀이성(김기순, 박인진, 2002; 김종석, 2011; 부정민, 김진선, 2009; 우수경, 2013; 이미선, 2011), 부모의 양육태도(박정연, 이성희, 2009), 부모 효능감(김해력, 2013), 유아교사의 성격요인(김경은, 2013), 교사-유아관계(최소영, 신혜영, 2015; 황윤세, 2006)로 나타났다.

즉, 유아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인(부모, 교사)에 대한 변인들이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져왔고, 이는 유아 놀이성을 증진시키는 것에 있어 성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부모는 유아에게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고, 유아기는 인간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김종석, 2011)이기 때문에 유아 놀이성에 있어 부모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성인의 놀이성이란 즐거움, 유쾌함, 재미, 자유로움을 포함하는 성격 특성으로, 한 개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환경을 보다 재미있고 유쾌하게 전환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롭게 하는 심리적 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부정민, 김진선, 2009, 재인용). 이 점에 근거하여 유아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모의 놀이성이 높다면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양육에 임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박현숙(2003)은 유아에게 있어 성인의 놀이성은 유아 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을 언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부정민과 김진선(2009)은 성인이 유아의 놀이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면 유아는 그들의 놀이가 가치 있음을 느끼고, 성인이 유아의 눈높이에서 놀이에 참여할 경우 그들은 성인을 권위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며, 성인은 유아에게 모델링의 대상이 되어 유아 자신의 놀이를 정교화 시켜 높은 수준의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고 유아 놀이에 대한 성인의 지지를 통해 그들이 놀이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김현아(2013)는 놀이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은 놀이 외의 다른 행동에까지 일반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놀이를 통해 성장하는 유아에게 있어 성인의 역할은 중요함은 물론이고, 유아의 놀이성이 부모 성격특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김기순(2002)의 연구를 통해서도 부모 놀이성은 유아 놀이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는 유아와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고 유아의 주된 모델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아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놀이성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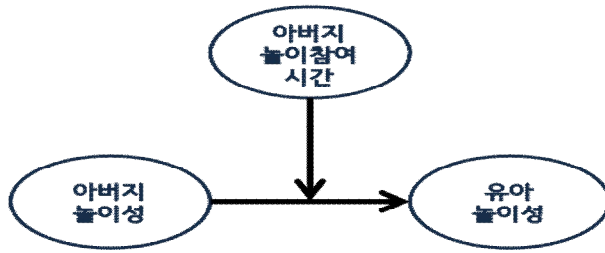
부모 놀이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유아 놀이성에 대한 많은 연구와 달리 소수에 불과하나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Glynn과 Webster(1992)는 성인의 성격 구조로서의 놀이성을 이론적 기초로 구조화하여 성인용 놀이성 척도(Adult Playfulness Scale: APS)를 개발하였다(부정민, 김진선, 2009). 구체적인 하위요인으로 자발성, 표현성, 유쾌함, 창의성, 순수성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며, Schafer와 Greenberg(1997)가

제작한 성인용 놀이성 척도(Playfulness Scale for Adult; PSA)에서는 유머와 위트, 재미탐닉적 성향, 즐거움과 낙천주의적 성향으로 성인의 놀이성을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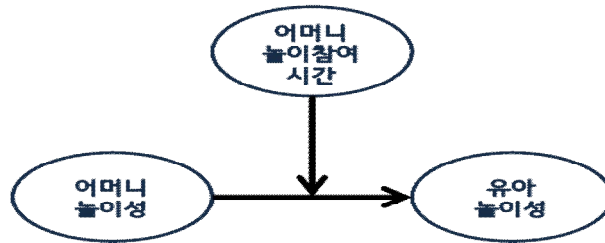
한편, 부모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의 관계에 대한 문헌고찰에서 부모 놀이성 전체와 유아 놀이성의 관계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다(김수미, 최진아, 2009; 부정민, 김진선, 2009)는 연구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놀이성 각각을 나누어 유아 놀이성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아버지 놀이성의 하위요인 중 쾌활성이 높을수록 유아 놀이성 하위요인 중 사회적 자발성과 유머감각이 낮게 나타난 결과를 보고하고, 어머니의 놀이성에서도 쾌활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이 낮아짐을 보고한다(부정민, 김진선, 2009).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 어머니 놀이성 전체와 유아의 놀이성 전체는 관계가 없으며, 하위요인 간 관계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이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김수미, 최진아, 2009). 그러나 한편, 부모 놀이성 전체와 유아 놀이성은 유의한 관계가 있다(김기순, 2002; 김종석, 2011; 이미선, 2011)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버지 놀이성 중 쾌활성이 높을수록 유아 놀이성 하위요인인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유머감각이 높았고, 어머니의 놀이성 하위요인에서 쾌활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유머감각이 높게 나타났다(이미선, 2011). 또한 아버지의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기순, 2002; 김종석, 2011)에서 아버지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관계와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할 때, 부모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의 관계에 대한 비 일관된 연구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부정민과 김진선(2009)은 부모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의 관계에서 이 두 변인을 중재하거나 매개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비 일관된 결과보고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유아 놀이성 척도는 외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국내에서 타당화 작업 없이 단순히 번안하여 사용된 점(김명순, 김길숙, 박찬화, 2012)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론됨에 따라 국내 상황을 고려하고, 반영하여 만든 유아 놀이성 척도를 통해 부모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간의 관계가 재검토 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기된 조절변인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맞벌이 부모가 놀이에 참여하는 시간과 자녀의 놀이성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놀이참여시간이 길수록 유아의 놀이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윤상인, 2011)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평일에 어머니가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이 길수록 유아 놀이성 하위요인인

사회적 자발성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고, 어머니가 주말에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의 놀이성 하위요인인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유머감각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놀이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의 놀이성이 증진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와의 놀이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증가하고(강정원, 1993), 아버지의 놀이참여 시간의 정도가 유아 놀이성 하위요인 중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에 영향(김다정, 2010)을 주고 있으며, 아버지가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유아의 놀이성은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김유경, 2002)를 통해서 아버지의 놀이참여시간이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이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서 살펴본 부모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간의 비 일관된 관계를 중재하는 변인으로 부모의 놀이참여 시간을 설정할 수 있겠고, 나아가 부모의 놀이성은 그들의 놀이참여시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놀이성을 보다 더 강력하게 증진시켜줄 수 있는 강화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부모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기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조절효과의 양상 또한 부모 각각 다를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조절효과를 부모 각각 살펴보고자하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아 발달에 중요한 변인인 놀이성 증진을 목표로 부모 각각 대상에 따라 부모 상담과 부모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는 연구모형과 함께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 1] 부 놀이성이 유아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놀이참여시간의 조절 효과



[연구모형 2] 모 놀이성이 유아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놀이참여시간의 조절효과

B.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부모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의 관계에서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버지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놀이참여시간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놀이참여시간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A. 유아 놀이성

Johan Huizinga(1938)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을 기존의 ‘사교하는 인간’,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의 개념에서 벗어나 호모 루덴스(Homo Ludens)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인간을 설명한다.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들이 본질적으로 놀이와 다름없음을 언급하면서 인류는 놀이로서 발전해왔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인류와 놀이의 관계는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놀이는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길로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아닌 놀이 그 자체가 목적인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지애, 2015). 이와 더불어 UN의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내용 중 놀이는 어린이의 기본 권리의 하나로 영양, 주거, 건강한 양육 및 교육과 함께 제시되어 있을 만큼 놀이가 유아에게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김명순, 김길숙, 박찬화, 2012, 재인용).

이와 같이 인간과 가깝고 인간에게 유익한 놀이는 다양하고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연구의 주된 대상은 놀이가 생활 그 자체이고 놀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전인적인 성장을 하는 유아들이었다. 한편,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는 연구자들은 유아의 놀이가 개인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놀이 속에서 보이는 유아들의 또래간 상호작용의 유형이 각자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개인차에 초점을 둔 연구자들은(Lieberman, 1965, 1977; Rogers, 1998) 놀이에 대한 심리 특성인 놀이성에 따라 개인차가 다양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놀이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놀이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학자마다 같은 맥락에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Levy(1984)의 연구에서 놀이성이란 놀이하는 동안 유아로부터 유지되는 놀이적이고 유머러스한 태도는 놀이자로 하여금 즐거움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러한 태도는 놀이성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이재은, 2006). Aquilar(1985)의 연구에서는 특정 개인을 자립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개인의 지각 혹은 태도로서 놀이성을 정의하고, 이는 인간의 생활양식의 한 부분으로 보았다(이재은, 2006). 또한 놀이성은 놀이의 질적 특성이자 내적 성향으로 여러 가지 상황, 과정, 과제에 걸쳐 신뢰롭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놀이성

이 발달한 유아는 쉽게 웃고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이재은, 2006, 재인용). 또한 Erikson(1972)은 놀이성은 삶의 질이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Sully(1902)는 ‘웃음에 대한 소고’를 통해 억제된 감정을 던져버리고 즐거움과 기쁨의 기초가 되는 놀이를 놀이답게 해주는 잠재적인 힘과 성향으로서의 놀이성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놀이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해 Lieberman(1997)은 놀이성 측정도구를 최초로 개발했고, 놀이상황에서의 행동, 놀이의 질과 양식으로 놀이성을 정의하였다. 유아의 놀이행동에서 관찰될 수 있는 개인의 인성 특질로서, 이후의 발달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위에서 언급한 학자들이 언급한 놀이성에 대한 개념들은 정의와 구성요인들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놀이성은 자발적인 내적 성향의 표현이자 마음의 태도로 즐거움을 공통적인 요인으로 가지고 있고(김지애, 2015, 재인용), 놀이성은 자신이 활동을 재미있게 생각하거나 활동에 참여해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성향이며, 외적으로 드러나는 놀이에 대한 태도(김영희, 1995)라고 할 수 있다.

놀이성이 정의됨에 따라 연구자들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개발된 측정도구를 통해 놀이성의 하위요인을 규명하였으며, 유아의 놀이성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한수정, 2013). 구체적으로 Lieberman(1965)은 최초로 놀이성 측정도구를 개발하였고, 그가 제시한 놀이성의 하위요인은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으로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박선영, 2010). 또한 Barnett(1991)은 Lieberman(1965)과 마찬가지로 놀이성을 측정하는 척도인 Children’s Playfulness Scale(CPS)를 개발하였고 이 또한 하위요인으로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으로 구성된다(박선영, 2010). Lieberman(1965)과 Barnett(1991)의 공통된 하위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신체적 자발성은 놀이할 때 신체기관의 협응 및 동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성향, 사회적 자발성은 놀이할 때 친구의 접근에 쉽게 반응하고 협동적이며 친구를 쉽게 사귀고 놀이감을 함께 나누는 성향, 인지적 자발성은 놀이를 이끌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놀이감을 사용하는 성향, 즐거움의 표현은 놀이가 주는 즐거움에 매료되고, 다양한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성향, 유머감각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 하고, 익살스러우며 우스꽝스런 장면이나 이야기에 잘 웃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유아 놀이성 측정도구와 관련된 국내연구로 김명순, 김길숙, 박찬화(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국내

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아 놀이성 척도가 구체적인 타당화 작업 없이 외국의 척도를 번안해온 상태 그대로 사용되었거나, 여러 차례 한계점이 드러난 Lieberman(1965)의 놀이성 척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다른 유아 놀이성 척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언급하며 우리의 상황에 맞는 유아용 놀이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 놀이성 측정도구로 이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한편, 유아 놀이성과 관련한 국내연구는 유아 발달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왔다. 유아 놀이성과 함께 연구된 관련변인으로 유아의 리더십(이연실, 2010), 유아의 정서능력 및 정서지능(우수경, 2013; 김영희, 2013), 유아의 놀이성과 친사회적 행동(박선영, 2012),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김은숙, 2013)이 있는데, 이 변인들은 유아 놀이성이 높을수록 증진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유아의 창의적 성격특성 또한 증진되며 문제행동이 줄어드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박성선, 2014; 한미현, 2002). 또한 놀이성이 높은 유아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최윤정, 1995, 재인용)을 경험하고, 또래와 적극적인 놀이 및 의사소통(김미숙, 2001, 재인용)을 하며, 사회적으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진행해 나간다(장은숙, 2002, 재인용)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자기조절능력은 유아 놀이성에 따라 증진되는 결과(이상은, 2010)를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유아 놀이성은 유아의 인지, 정서, 사회, 적응, 대인관계 등 유아 발달에 중요한 요인들과 함께 연구되어왔고, 변인과의 관계 대부분에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아 놀이성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B. 유아 놀이성과 부모 놀이성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아의 놀이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선행되어져왔다. 그 중, 대부분의 연구(김경은, 2013; 김기순, 박인전, 2002; 김종석, 2011; 김진선, 2009; 김해력, 2013; 박정연, 이성희, 2009; 부정민, 이미선, 2011; 우수경, 2013; 최소영, 신혜영, 2015; 황윤세, 2006)에서 유아의 놀이성 증진에 성인의 역할이 강조되어왔고,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과 관련된 변인 중에서도 가정에서 놀이를 통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유아에게 중요한 놀이 상대자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강정원, 1993; 이옥자, 1985; 한현아, 2000, 재인용)와

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다.

한편, 부모 놀이성을 이해하기 위해 성인 놀이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Glynn과 Webster(1992)는 놀이성에 대해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서 자기의 활동을 재미있는 활동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성향으로 정의하였고, 성인의 놀이성을 본질적인 기쁨, 관련성, 만족의 향상을 위한 상상적이고, 심심하지 않거나 혹은 은유적 태도를 지닌 행동을 정의하기 위한 경향으로서의 개인적인 특성이라고 개념화하였다(김지애, 2015, 재인용). 또한 Schaefer와 Greenberg(1997)는 놀이에 대한 각각 학자들의 정의에서 ‘재미’라는 측면이 공통된 부분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놀이성이 높은 사람은 일, 관계 맺기, 재미를 추구하려는 성향을 가지며 여가 활동처럼 일상 활동에 접근한다고 하였다(김지애, 2015). 이에 더해 부정민과 김진선(2009)은 성인 놀이성은 즐거움, 유쾌함, 재미, 자유로움을 포함하는 성격 특성으로, 한 개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환경을 보다 재미있고 유쾌하게 전환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심리적 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성인 놀이성의 정의에 근거하였을 때 성인의 놀이성은 성격특성이고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김지애, 2015).

한편, 박현숙(2003)은 유아에게 있어 성인의 놀이성은 유아 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을 언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부정민과 김진선(2009)은 성인이 유아의 놀이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면 유아는 그들의 놀이가 가치 있음을 느끼고, 성인이 유아의 눈높이에서 놀이에 참여할 경우 그들은 성인을 권위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며, 성인은 유아에게 모델링의 대상이 되어 유아 자신의 놀이를 정교화 시켜 높은 수준의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고 유아 놀이에 대한 성인의 지지를 통해 그들이 놀이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음을 보고 한다. 이에 더해, 김현아(2013)는 이러한 놀이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은 놀이 외의 다른 행동에까지 일반화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이로 보아 놀이를 통해 성장을 하는 유아에게 있어 성인의 역할이 중요함은 물론이고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아의 놀이성은 부모 성격특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김기순(2002)의 연구를 통해서도 부모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인 중에서도 부모는 유아와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고 유아의 주된 모델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아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놀이성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에 따라 본 연구자는 부모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를 고

찰한 결과 부모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의 관계에 대한 비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부모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은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김기순, 박인전, 2002; 김종석, 2011; 이미선, 2011)와 부모 놀이성은 유아 놀이성과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결과(김수민, 최진아, 2015; 부정민, 김진선, 2009; 신선희 등, 2008; 이충강, 2004)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이미선(2011)은 아버지의 놀이성 중에 쾌활성이 높을수록 유아 놀이성 하위요인인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이 유의하게 높았고, 어머니의 놀이성 하위요인에서 쾌활성 또한 유아의 사회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고한 반면 부정민과 김진선(2009)은 아버지가 쾌활성이 높을수록 유아 놀이성 하위요인인 사회적 자발성과 유머감각이 낮게 나타난 결과를 보고 했고, 어머니의 쾌활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고한다. 이는 정반대의 결과를 반영한다. 이러한 비 일관된 결과들에 대해 부정민과 김진선(2009)은 측정도구,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에서 오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음을 원인으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바 있다. 또한 김명순(2013)은 지금까지 국내 연구에서 사용된 유아의 놀이성 측정도구는 단순히 국내 타당화 작업 없이 외국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 점, 그에 따라 국내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 점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척도를 개발하였으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이 척도를 사용한 것은 전무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만든 유아 놀이성 척도를 통해 유아 놀이성과 부모 놀이성의 관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같은 놀이성 측정도구를 사용하고도 부모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 간 관계에 대하여 각기 다른 결과를 반영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부모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을 중재하고 있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위에 제시된 문헌고찰은 주로 부모의 놀이성을 하나로 보고 유아 놀이성에 대한 상관관계와 영향력에 대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놀이성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아버지 놀이성 자체만을 살펴볼 때 가장 두드러지는 하위요인은 재미탐닉적 성향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김기순, 박인전, 2002; 안선정, 2000), 놀이성 측정도구가 달라 같은 의미의 하위요인은 아니나 재미탐닉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쾌활성 요인이 아버지의 놀이성 하위요인 중에서 점수가 높아 두드러지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부정민, 김진선, 2009). 또한 유아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놀이성을 살펴볼 때, 아버지의

놀이성 전체가 유아의 놀이성을 유의하게 예언해주는 결과(이미선, 2011)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아버지 놀이성 하위요인에서 쾌활성이 유아 놀이성 하위요인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 놀이성의 영향을 유아 성별에 따라 살펴본 연구(김기순, 박인진, 2002)에서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아버지의 놀이성이 여아의 놀이성만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남아의 놀이성을 설명해주지 못하는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에 더해 부정민과 김진선(2009)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놀이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쾌활성만이 유일하게 유아 놀이성 전체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부모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간의 비일관된 결과를 아버지의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간 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놀이성은 아버지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더 많은 양의 선행연구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어머니 놀이성 자체만을 살펴볼 때, 어머니 놀이성 중 쾌활성(부정민, 김진선, 2009)과 이와 유사한 의미의 재미있는 성격특성(이중강, 2004)이 가장 두드러지는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놀이성 전체가 높을수록 유아 놀이성이 낮아지는 결과(부정민, 김진선, 2009)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하위요인 간 관계에서 모의 쾌활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성이 더 낮아지는 결과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어머니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의 정적상관관계를 밝힌 연구결과(권혜진, 2013; 김영희, 2012; 이미선, 2011)가 있었는데, 이미선(2011)은 어머니의 쾌활성이 높으면 유아 놀이성이 높음을 제시한다. 따라서 모의 놀이성 또한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비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를 종합할 때, 공통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성향에서 재미탐닉, 쾌활성, 즐거움의 특성이 다른 하위요인 보다 더 두드러지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시에 그들의 놀이성은 유아의 놀이성에 비 일관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부모 놀이성의 영향을 살펴볼 때, 아버지 놀이성은 유아의 놀이성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결과와 없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어머니의 놀이성은 전반적으로 유아 놀이성에 유의한 영향은 미치고 있지만 그 관계가 정적인 것과 부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 양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 놀이성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놀이성과 조절변인의 영향을 각각 따로 살펴보고자한다.

C. 부모 놀이성과 놀이참여시간

앞선 언급에서 부모 놀이성은 유아의 놀이성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부모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대해 부, 모 모두 비 일관된 형태의 영향을 보고한다. 그럼에도 부모는 유아의 거울이자 중요한 모델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높은 놀이성은 유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놀이성 수준이 높은 부모가 유아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많을수록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예측해볼 수 있는데, 특히 유아의 주된 상호작용 방식인 유아의 놀이에 부모가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유아의 놀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유아 놀이에 대한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이 길수록 유아의 놀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강정원,1993; 김다정,2010; 김유경,2002; 윤상인,2011)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맞벌이 가정형태, 출산 후 여성의 이른 직장 복귀 시기, 짧은 출산휴가는 자녀가 어린 연령임에도 그들이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자녀양육 참여시간을 비교한 연구(이영환, 2012)에서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평일 44분을 투자하고, 어머니는 4시간 50분을 투자하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시간에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외에도 가사 일이 포함되어 있어 온전히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투자하는 시간으로 보기에 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맞벌이 가정에서도 부모가 유아의 놀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그만큼 유아의 놀이성이 증진된다는 연구(윤상인, 2011)결과에 따라 부모가 놀이성이 높고, 놀이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다면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 놀이성이 보다 많은 폭으로 증진될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즉, 부,모의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단편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 놀이참여시간과의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유아 놀이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함에 따라 부,모의 놀이성과 놀이참여시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D. 부모 놀이성, 유아 놀이성, 부모 놀이참여시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부모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간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비 일관된 결과에 따라 그 사이에서 중재하고 있는 변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보다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아 놀이성 도구를 사용한 부모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간 관계의 재검토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먼저 조절변인의 탐색을 위해 윤상인(2011)이 밝힌 맞벌이 부모의 놀이참여시간과 유아 놀이성간 상관관계에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놀이성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어머니가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유아의 놀이성이 늘어남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어머니의 놀이참여시간을 평일과 주말로 살핀 결과에서 어머니의 평일 하루 놀이 참여시간은 자녀의 놀이성 전체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유아 놀이성 하위요인인 사회적 자발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고 있으며, 어머니의 주말 하루 놀이참여시간은 자녀 놀이성 전체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고하고, 자녀의 놀이성 하위요인인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유머감각에 고르게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을 보고한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놀이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의 놀이성 전체 및 하위요인 또한 정적인 방향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하게 한다. 한편 아버지의 놀이참여시간은 어머니의 놀이참여시간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시간을 온전히 유아와의 놀이에 사용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희영(1998)은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놀이경험이 비록 양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편이지만 아버지는 자녀와 함께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놀이로 보내면서 유아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내었고, 아버지가 자녀의 놀이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증가하고(강정원, 1993), 유아 놀이성 중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김다정, 2010), 아버지가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유경, 2002)를 통해 아버지의 놀이참여시간이 유아 놀이성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변인임을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이 길수록 유아 놀이성이 증진될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고, 나아가 부모 놀이성과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 놀이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절변인으로 설정해볼 수 있겠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성에 유의한 정적 상관과 영향력을 주고 있는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유아 놀이성에 대한 부모의 놀이성 수준과 그들의 놀이참여시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에 따라 다음의 이론적 가정 3가지의 유형에서 본 연구의 가설에 적절한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한다. 첫 번째 유형으로 ‘강화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종속변수에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효과가 가법효과(additive effect)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조절변수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

가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완화효과’를 들 수 있다. 이는 조절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조절변수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가법효과에 비해 감소한다. 이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가법효과에 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경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대립효과’가 있다. 이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는 종속변수에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나 상호작용효과는 반대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절변수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반대로 나타난다. 이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경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배병렬, 2015, pp. 6-7).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간 관계에서 부모 놀이참여시간이 강화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하에 놀이참여시간이 길수록 부모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효과가 더 커지는 강화효과를 살펴보고자한다.

Ⅲ.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광주(북구-M유치원, 동구-M상담센터, 광산구-L·S유치원), 전남(목포시-O유치원, 장성군-S유치원, 담양군-D·E·H유치원)에 위치한 유아기관 9곳에 재원중인 450명의 유아와 그들의 부모 450쌍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중 회수된 유아와 부모에 대한 설문지는 총 332부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유아 관련 설문지는 5부, 아버지 관련 설문지는 17부, 어머니 관련 설문지는 8부였다. 그에 따라 총 30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중, 만 5세 유아는 151명(50.0%), 만 6세 유아는 151명(50.0%)이었으며, 남아 151명(50%), 여아 151명(50.0%), 아버지(50.0%), 어머니(50.0%)였다.

B. 측정 도구

1. 유아 놀이성 평정 척도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Lieberman(1997)이 제시한 놀이성 개념(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 Rubin 등(1983)이 제시한 놀이성향의 6가지 준거(내적동기, 과정지향, 유기체 주도, 비사실성, 외적으로 부과된 규칙으로부터 자유, 적극적 참여)와 Rogers 등(1998)의 놀이성 개념을 기초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개발한 김명순 등(2012)의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인구학적 정보를 묻는 문항과 유아의 놀이성을 묻는 35개 문항이고,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어머니 또는 주 양육자가 평정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35~17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성 성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위 요인으로 주도적참여, 인지적융통성, 즐거움의 표현, 자발적 몰입이 있고 구체적으로 주도적 참여는 놀이 시 또래와의 협력정도, 나누기, 접촉, 또래 수용정도, 상호작용 등의 주도성과 관련 있고 15문항, 인지적융통성은 놀이 시 유아의 융통성, 독창성, 문제해결력 등의 인지적 과정을 측정하는 것으로 9문항, 즐거움의 표현은 놀이 시 기

쁨, 즐거움, 성취에 대한 만족감, 미소 등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다루는 것으로 6문항, 자발적 몰입은 놀이 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특성을 다루는 것으로 5문항이다(김명순 등, 2012).

<표 1> 유아 놀이성의 각 영역에 대한 문항구성과 신뢰도 (N=302)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주도적 참여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31, 32	15	.922
인지적 융통성	1, 2, 3, 4, 5, 6, 7, 13, 14	9	.852
즐거움의 표현	28, 29, 30, 33, 34, 35	6	.864
자발적 표현	8, 9, 10, 11, 12	5	.772

2. 부모 놀이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Schafer와 Greenberg(1997)가 제작한 성인용 놀이성 척도(Playfulness Scale for Adult; PSA)를 양은실(1998)이 수정·변안한 것을 바탕으로 김기순(2002)이 예비연구조사를 거쳐 신뢰도를 구하고 타당도검증을 실시한 3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유머·위트’ 6개 문항으로 ‘나는 가끔 약간은 거칠고 익살스럽게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대체로 내가 먼저 재미있는 말이나 행동을 시작하는 편이다.’ 는 내용의 질문지로 구성된다. ‘재미탐닉’은 8개 문항으로 ‘나는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편이다.’, ‘나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을 매우 좋아하며 즐긴다.’ 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즐거움·낙천지향적’ 성향은 5개 문항으로 ‘나는 일속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나의 인생관은 비판적이기보다는 낙관적이라고 생각한다.’ 는 질문문항으로 부모 놀이성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Cronbach’a의 값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머위트는 아버지: .645 , 어머니: .644 이고 재미탐닉은 아버지: .759 , 어머니: .737 이며, 즐거움·낙천지향적 성향은 아버지: .630 , 어머니: .623으로 나타났다.

<표 2> 부모 놀이성의 각 영역에 대한 문항구성과 신뢰도계수 (N=302)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부/모)
유머위트	1, *2, *8, 12, 14, 19	6	.645 / .644
재미탐닉	3, 4, 5, 6, *13, 16, 17, 18	8	.759 / .737
즐거움 · 낙천지향	7, 9, 10, 11, 15	5	.630 / .623

* 역채점 문항

3. 부모 놀이참여시간

본 설문지에는 일주일 동안 부,모가 자녀의 놀이에 참여하는 시간은 ‘30분미만’, ‘30분~1시간’, ‘1시간~2시간’, ‘2시간이상’, ‘기타문항’까지 부,모가 자신의 놀이시간을 각각 체크하였다. 이 자료는 추후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연구에 사용되었고, 더미 변수처리 시, 어머니의 놀이참여시간은 ‘1시간’을 기준으로 ‘기타’, ‘30분미만’, ‘30분~1시간’에 대한 더미 변수변환은 1로 자료 처리되었으며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에 대한 더미 변수변환은 2로 자료 처리하여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에 비하여 가사활동보다 경제활동의 시간이 더 많았던 선행연구의 동향과 일주일 평균 44분의 시간을 양육에 참여한다는 연구결과(이영환, 2012)를 고려하여 ‘30분’을 기준으로 ‘기타’, ‘30분미만’에 대한 더미 변수변환은 1로 자료 처리되었으며 ‘30분~1시간’,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에 대한 더미 변수변환은 2로 자료 처리하여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놀이시간에서 ‘기타’의 내용은 놀이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빈도에 따라 더미변수 처리 시 ‘1’에 포함되었다.

C.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광주·전남에 위치한 유아기관 9곳에서 수집되었으며, 해당 기관에 재원중인 450명의 유아와 그들의 부모 450쌍을 대상으로 배부·회수하였다. 설문 참여 대상자의 모집을 위해 광주·전남에 위치한 9개 유아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각 기관의 책임자에게 설문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실시하고 설문조사에 동의한 기관에 한하여 각 기관의 만 5세, 6세에 해당하는 유아의 인원수만큼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배포는 각 반의 담임선생님을 통해 배부되었으며 유아의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작성하여 각 기관에 제출하여 교사가 회수한 것을 본 연구자가 최종 회수 하였다. 설문지 회수는 배포 후 1주일의 간격을 두어 해당 기관에 재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2016년 9월 첫째 주부터 배부하였고 동년 10월 둘째 주까지 유아와 부모 332쌍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유아 관련 설문지는 5부, 아버지 관련 설문지는 17부, 어머니관련 설문지는 8부였으며 이를 제외한 302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D.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각 변인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검증하였다.

둘째, 전체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유아 놀이성에 대한 부모 놀이성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부모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놀이참여시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그래프를 통해 기울기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A. 기술통계

1. 인구통계학적 자료에 대한 빈도 분석

a. 유아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자료

피험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에 제시된 <표 3>과 같다. 먼저 연령은 만 5세 151명(50.0%), 만 6세 151명(50.0%)이었다. 성별의 경우 남자는 151명(50.0%), 여자는 151명(50.0%)이었다. 연령 및 성별에서 적절한 비율을 나타낸다.

<표 3> 연구대상 유아의 분포

(N=302)

분류		빈도	백분율(%)
연령	만 5세	151	50.0
	만 6세	151	50.0
성별	남 아	151	50.0
	여 아	151	50.0

b. 부모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자료

<표 4>에 나타난 아버지 특성을 보면 연령은 40대(53.0%)가 가장 많았고, 30대(41.1%), 50대(4.3%), 20대(1.6%) 순으로 분포되어있다. 학력은 대졸(65.2%)이 가장 많았고, 고졸(25.2%), 대학원졸(7.6%), 중졸(1.0%), 기타(1.0%) 순으로 구성된다.

일주일 평균 자녀와 아버지의 놀이시간은 2시간이상(35.4%)으로 가장 많았고 1시간~2시간(29.8%), 30분~1시간(24.5%), 30분 미만(6.6%), 기타(3.6%)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30대(61.2%)가 가장 많았고, 40대(31.5%), 20대(5.6%), 50대(1.7%) 순으로 구성되어있다. 학력은 대졸(62.6%)이 가장 많았고, 고졸(27.2%), 대학원졸(7.6%), 중졸(2.0%), 기타(0.7%) 순으로 구성된다. 또한 일주일 평균 자녀와 어머니의 놀이시간은 2시간 이상(52.0%)이 가장 많았고, 1시간~2시간(24.2%), 30분~1시간(12.3%), 기타(7.3%), 30분 미만(4.3%)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대상 부·모의 일반적 특성 및 빈도

(N=302)

분류	부	백분율 (%)	모	백분율 (%)	
연령	20대	5	1.6	17	5.6
	30대	124	41.1	186	61.2
	40대	160	53.0	94	31.5
	50대	13	4.3	5	1.7
학력	중졸	3	1.0	6	2.0
	고졸	76	25.2	82	27.2
	대졸	197	65.2	189	62.6
	대학원졸	23	7.6	23	7.6
	기타	3	1.0	2	0.6
자녀와의 일주일 평균 놀이시간	30분미만	20	6.6	13	4.3
	30분~1시간	74	24.5	37	12.3
	1시간~2시간	90	29.8	73	24.1
	2시간이상	107	35.4	157	52.0
	기타	11	3.7	22	7.3

2.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

유아 놀이성, 부모님의 놀이성, 부모님의 놀이참여시간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5>와 같이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로 유아의 놀이성은 평균 132.26 (SD=16.11)으로 나타났고, 유아 놀이성 하위요인인 주도적 참여는 54.97 (SD=7.87),

인지적 융통성은 33.40 (SD=35.15), 즐거움의 표현은 25.10 (SD=3.28), 자발적 몰입은 18.78 (SD=2.76)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놀이성은 평균 50.34 (SD=7.24)로 어머니의 놀이성 평균 51.00 (SD=6.96)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를 나타낸다. 또한 아버지 놀이성 하위요인인 유머 위트는 16.03(SD=2.65)로 어머니의 유머위트 15.87(SD=2.69)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아버지 놀이성 하위요인 중 재미탐닉은 평균 20.17(SD=3.75)였고 어머니의 재미탐닉 20.75(SD=20.75) 보다 근소한 차이로 낮은 점수를 타낸다. 아버지의 놀이성 하위요인 인 즐거움·낙천지향적 성향은 평균 14.15(SD=2.28)로 어머니의 즐거움·낙천지향적 성향 14.38(SD=2.27)에 비하여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즉, 부모 놀이성 하위요인 중, 아버지의 평균점수는 유머위트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에서 어머니보다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일주일 평균 놀이참여시간은 더미변수처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경우,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는 시간은 더미변수로 변환한 값을 기준으로 평균은 1.90(SD=0.30)으로 나타났고, 어머니는 평균이 1.76(SD=0.43)으로 나타났다.

<표 5>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302)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유아 놀이성 전체	132.26	16.11	173	63
유아 놀이성_주도적참여	54.97	7.87	75	20
유아 놀이성_인지적융통성	33.40	5.15	45	14
유아 놀이성_즐거움의 표현	25.10	3.28	30	14
유아 놀이성_자발적 몰입	18.78	2.76	25	11
부 놀이성 전체	50.34	7.24	73	34
부 놀이성_유머위트	16.03	2.65	24	10
부 놀이성_재미탐닉	20.17	3.75	31	10
부 놀이성_즐거움·낙천지향	14.15	2.28	20	8
모 놀이성 전체	51.00	6.96	69	31
모 놀이성_유머위트	15.87	2.69	23	9
모 놀이성_재미탐닉	20.75	3.75	31	12
모 놀이성_즐거움 낙천지향	14.38	2.27	20	7
부 놀이참여 시간 더미변수	1.90	0.30	2	1
모 놀이참여 시간 더미변수	1.76	0.43	2	1

3. 상관관계분석

a. 아버지 놀이성, 아버지 놀이참여시간, 유아 놀이성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놀이성, 아버지 놀이참여시간, 유아 놀이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예측변인인 아버지 놀이성과 종속변인인 유아 놀이성간의 상관관계에서 아버지 놀이성 전체는 유아 놀이성 전체에 ($r=.26$, $p<.01$)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아버지 놀이성 하위요인인 유머유티, 재미탐닉, 즐거움·낙천지향적 성향(각각, $r=.12$ $p<.05$, $r=.27$ $p<.01$, $r=.21$ $p<.01$)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아버지의 놀이성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 놀이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버지의 유머·유티 수준이 높거나, 재미를 추구하는 성향이 높거나, 일상에서 즐거움과 낙천지향적인 태도를 갖는 수준이 높을 경우 유아 놀이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절변인으로 설정한 아버지의 놀이참여시간은 종속변인인 유아 놀이성과($r=.12$, $p<.05$)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아버지의 놀이참여시간이 많을수록 유아 놀이성 수준 또한 높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6> 부 놀이성, 부 놀이참여시간, 유아 놀이성의 상관관계

(N=302)

척도	1.	2.	3.	4.	5.	6	7.	8.	9.	10.
1.	1									
2.	.84**	1								
3.	.88**	.59**	1							
4.	.75**	.52**	.47**	1						
5.	.27**	.22**	.25**	.18**	1					
6.	.26**	.14*	.27**	.21**	.12*	1				
7.	.20**	.11	.19**	.18**	.05	.92**	1			
8.	.26**	.14*	.29**	.17**	.19**	.85**	.63**	1		
9.	.23**	.12*	.25**	.18**	.15**	.70**	.54**	.51**	1	
10.	.20**	.11	.21**	.18**	.38	.81**	.68**	.68**	.44**	1

1.아버지 놀이성 전체, 2.아버지 놀이성_유머witz, 3.아버지 놀이성_재미탐닉, 4.아버지 놀이성_즐거움 낙천지향, 5.아버지 놀이참여시간, 6.유아놀이성총합, 7.유아놀이성_주도적참여 8.유아놀이성_인지적응통성, 9.유아놀이성_즐거움의 표현, 10.유아놀이성_자발적 몰입

b. 어머니 놀이성, 어머니 놀이참여시간, 유아 놀이성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놀이성, 어머니 놀이참여시간, 유아 놀이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예측변인인 어머니 놀이성과 종속변인인 유아 놀이성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면 어머니 놀이성 전체는 유아 놀이성 전체에($r=.38$, $p<.01$)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어머니 놀이성 하위요인 유머위트, 재미탐닉, 즐거움·낙천지향적 성향 (각각, $r=.25$, $p<.01$, $r=.39$, $p<.01$, $r=.24$, $p<.01$)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어머니의 놀이성 수준이 높으면 유아 놀이성이 높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고, 어머니의 유머·위트 수준이 높거나, 재미를 추구하는 성향이 높거나, 일상에서 즐거움과 낙천지향적인 태도를 갖는 수준이 높을 경우 유아 놀이성 수준이 높을 것을 알 수 있다.

조절변인인 어머니의 놀이참여시간은 종속변인인 유아 놀이성에 ($r=.15$, $p<.05$)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어머니의 놀이참여시간이 많을수록 유아의 놀이성 수준이 높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7> 모 놀이성, 모 놀이참여시간, 유아 놀이성의 상관관계

(N=302)

척도	1.	2.	3.	4.	5.	6.	7.	8.	9.	10.
1.	1									
2.	.81**	1								
3.	.86**	.52**	1							
4.	.68**	.44**	.35**	1						
5.	.04	.02	.01	.07	1					
6.	.38**	.25**	.39**	.24**	.15*	1				
7.	.32**	.22**	.30**	.23**	.11	.92**	1			
8.	.33**	.19**	.37**	.19**	.18*	.85**	.63**	1		
9.	.31**	.19**	.35**	.13*	.11	.70**	.54**	.51**	1	
10.	.33**	.23**	.30**	.25**	.12	.81**	.68**	.68**	.44**	1

1.어머니 놀이성 전체, 2.어머니 놀이성_유머위트, 3.어머니 놀이성_재미탐닉, 4.어머니 놀이성_즐거움 낙천지향, 5.어머니 놀이참여시간, 6.유아놀이성전체, 7.유아놀이성_주도적참여 8.유아놀이성_인지적용통성, 9.유아놀이성_즐거움의 표현, 10.유아놀이성_자발적 몰입

B. 부모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부모 놀이참여시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에 앞서 부모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 놀이성의 하위요인인 유머워트, 재미탐닉, 즐거움·낙천지향적 성향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유아 놀이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예측변인인 아버지 놀이성의 하위요인 유머워트, 재미탐닉, 즐거움·낙천지향적 성향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부모 놀이성이 유아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302)

예측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 ²	F
유머워트		-.44	.44	-.07	-.99		
재미탐닉	유아놀이성	1.08	.30	.25	3.56***	.09	9.18***
즐거움 낙천지향		.90	.47	.13	1.91		

*** $p < .001$

유아 놀이성에 대한 아버지 놀이성의 설명력은 9%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F=9.18, p < .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아버지 놀이성의 하위요인인 재미탐닉($\beta=.25, p < .001$)이 유아 놀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유머워트, 재미탐닉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재미를 추구하는 성향일수록 유아 놀이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어머니의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예측변인인 어머니 놀이성의 하위요인인 유머witz, 재미탐닉, 즐거움·낙천지향적 성향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모 놀이성이 유아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302)

예측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 ²	F
유머witz		.10	.39	.02	.26		
재미탐닉	유아놀이성	1.45	.27	.34	5.38***	.16	19.31***
즐거움 낙천지향		.82	.42	.12	1.93		

*** $p < .001$

유아 놀이성에 대한 어머니 놀이성의 설명력은 16%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F=19.31, p < .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 놀이성의 하위요인인 재미탐닉($\beta=.34, p < .001$)이 유아 놀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유머witz, 재미탐닉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재미를 추구하는 성향일수록 유아 놀이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 부모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놀이 참여시간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부모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모 놀이 참여시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유아 놀이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의 놀이성과 놀이참여시간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다음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투입된 변인들과 함께 부모 놀이성과 부모 놀이참여시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그 상호작용항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호작용항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어 조절효과가 나타난 경우, 회귀분석에서의 상호작용효과는 Al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림으로 그려졌다. 즉 비표준화회귀계수로 회귀식을 구하고 예언변수와 조절변인 각각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회귀방정식에 대입하여 유아 놀이성의 예언값을 구하였다.

1. 아버지의 놀이참여시간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 놀이참여시간의 조절효과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아버지의 놀이참여시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10> 부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놀이참여시간의 조절효과

(N=302)

종속변인	단계	예측변인	β	R^2	ΔR^2	F
유아 놀이성	1	아버지 놀이성 (A)	.26***	.07	—	10.77***
		아버지 놀이참여 시간 (B)	-.02			
	2	아버지 놀이성 (A)	-.16	.07	—	7.68***
		아버지 놀이참여 시간 (B)	-.01			
		(A) X (B)	.43			

*** $p < .001$

<표 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부의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놀이참여시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설명력은 1단계에서 7%로 유의하였다($F=10.77, p < .001$). 그러나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2단계에서 설명량은 7%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호작용항의 설명력은 유의하지 않았다($\beta = .43, p > .05$). 따라서 아버지의 경우, 놀이참여시간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어머니의 놀이참여시간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놀이참여시간의 조절효과

어머니의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어머니의 놀이참여시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모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놀이참여시간의 조절효과

(N=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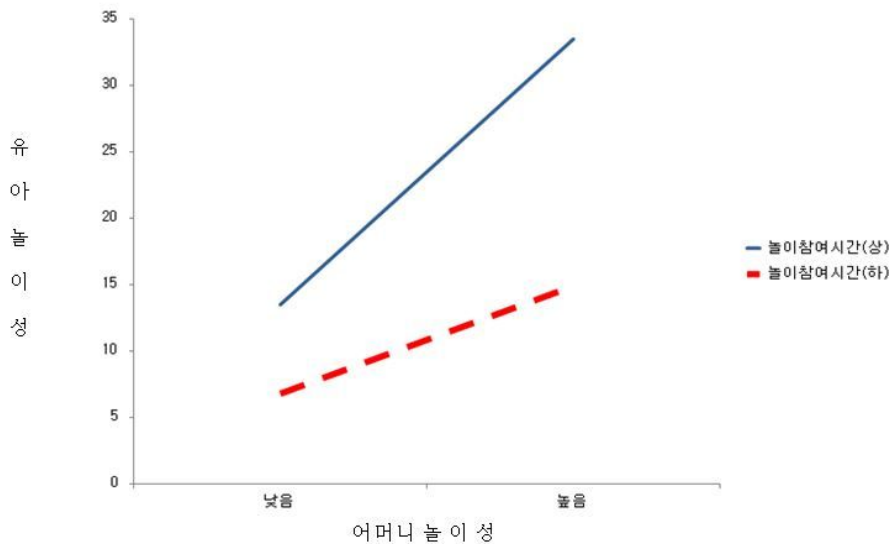
종속변인	단계	예측변인	β	R^2	ΔR^2	F	
유아 놀이성	1	어머니 놀이성 (A)	.38***	.15	—	26.84***	
		어머니 놀이참여 시간 (B)	.08				
	2	어머니 놀이성 (A)	-.04	.16	.01	19.40***	
		어머니 놀이참여 시간 (B)	.08				
		(A) X (B)					.43*

* $p < .05$, *** $p < .001$

<표 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의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놀이참여시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모의 놀이성과 놀이참여시간은 1단계에서 유아 놀이성에 대한 설명력이 15%로 유의하였다($F = 26.84, p < .001$). 이후 2단계에서 추가로 모의 놀이성과 놀이참여시간의 상호작용변인을 투입하였으며, 그 설명력은 16%로 유의하였다($F = 19.40, p < .001$). 즉, 모의 놀이성과 놀이참여시간의 설명력에 더하여 상호작용 변인에 의해 1%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 모의 놀이성과 놀이참여시간의 상호작용 변인이 유아 놀이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3, p < .05$).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모의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서 모의 놀이참여시간이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된 조절효과의 구체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림으로 그려

졌다. 즉 비표준화회귀계수로 회귀식을 구하고 예언변수인 어머니 놀이성과 놀이참여 시간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회귀식에 대입하여 유아 놀이성에 대한 예언값을 구하였다. <그림 1>의 결과를 보면, 어머니의 놀이성이 낮은 경우 놀이참여시간과 유아의 놀이성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의 놀이성이 높은 경우 놀이참여시간이 길수록 유아의 놀이성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 놀이성에 대한 어머니의 놀이성과 놀이참여시간의 상호작용은 강화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모 놀이성과 놀이참여시간의 상호작용 효과

V. 결론 및 제언

A.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만 5세, 만 6세) 자녀와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부모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놀이에 참여하는 시간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302명의 부모 및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성격 특성으로 재미 탐닉적인 놀이 성향이 가장 많았고, 어머니 또한 재미 탐닉적인 놀이 성향이 가장 많았다. 유아의 내적변인인 놀이성향으로는 주도적 참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놀이성에서 재미탐닉과 쾌활성이 가장 많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던 선행연구(김기순, 박인진, 2002; 부정민, 김진선, 2009; 안선정, 2000; 이중강, 2004)와 일관된 통계적 결과를 반영한다.

둘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성 전체는 유아 놀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부모의 놀이성이 높으면 유아의 놀이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던 부모의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 간 관계에서 부모의 놀이성이 높으면 유아 놀이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김기순, 박인진, 2002; 김종석, 2011; 이미선, 2011)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의 비 일관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부모의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양상이 각각 다를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부모의 놀이성이 비슷한 양상으로 유아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아 놀이성이 부모의 성격변인인 놀이성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부모 놀이성 수준에 따라 유아의 놀이성 수준을 예상해볼 수 있고, 유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아의 놀이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및 부모 상담에 있어 부모 놀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다.

셋째, 구체적으로 유아 놀이성을 인과적인 관계로 예측해줄 수 있는 부모 놀

이성 하위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에서 아버지, 어머니 모두 놀이성 하위요인 중, 재미탐닉적 성향이 유아 놀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아버지, 어머니가 재미를 추구하는 성향일수록 유아의 놀이성이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미를 추구하는 성향이 유아의 놀이성을 예측하는 부모 놀이성의 주된 하위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같은 결과를 나타낸 김기순(2002), 부정민과 김진선(2009)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부,모가 평소에 자녀의 놀이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적 접근이나 놀이방법의 안내,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넷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참여시간과 유아 놀이성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놀이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유아 놀이성 또한 정적인 형태로 높을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강정원(1993), 김수희(2004)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놀이참여시간이 유아의 놀이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결과는 윤상인(2011)의 주장을 지지한다. 이는 앞서 서론에서 본 연구자가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을 조절변인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고, 부모가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다면 대체로 유아의 놀이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절변인으로 설정한 아버지의 놀이참여시간과 놀이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는 놀이성과 놀이참여시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놀이참여시간은 아버지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의 비 일관된 관계를 중재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경우 놀이참여시간이 어머니와 유아 놀이성의 비 일관된 관계를 안정적으로 조절해주는 유의한 변인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선행연구(조복희, 1996; Bridges, Connell, & Belsky, 1998; Leaper & Gleason, 1996; Macdonald & Parke, 1984)에서는 아버지와 유아 사이의 놀이유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는 유아와의 놀이에서 주로 신체적 놀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신체놀이는 체력적인 소진이 상징놀이를 관계하는 어머니에 비해 이른 시점에 나타나 놀이의 지속시간은 짧지만 자녀에게 보다 질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을 제공하여 유아 놀이성 증진에 영향을 줄 것임을 선행연구(원희영, 1998) 고찰을 통해 논의할 수 있겠다. 따라서 아버지의 경우, 놀이유형이 그의 놀이성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비 일관된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으나, 추후의 연구에서 검

증될 필요가 있고, 그 외의 유의한 요인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유아 놀이성의 신체적 자발성을 증진하는 것에 유의한 영향(박정연, 이성희, 2009)을 주고 있어 아버지의 놀이성과 양육태도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놀이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 외에 유아 놀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변인으로 아버지의 부모 효능감, 양육행동(김종석, 2011), 결혼만족도, 자기효능감(배미경, 2015), 정서표현수용태도(김정림, 2009)를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효과검증은 추후 연구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어머니의 놀이참여시간 정도가 어머니의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 사이에서 유의한 조절변인으로 밝혀졌고, 나아가 어머니의 놀이성 수준이 높을 경우 놀이참여시간이 많을수록 유아의 놀이성이 높아지는 강화효과를 확인한 만큼 어머니의 놀이성을 수준을 높이고, 유아의 놀이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놀이프로그램의 개발, 놀이방법의 안내, 부모교육 등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유아 놀이성을 증진하는 것에 있어 유아의 환경적 변인인 부모의 영향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성을 증진함에 있어 유아의 개인 내적 요인 또한 살펴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본 연구에서는 부모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간의 관계, 부모 놀이참여시간과 유아 놀이성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각각의 변인이 유아 놀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놀이성이 단독으로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보다 놀이참여시간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주었을 때 보다 더 강력하게 유아 놀이성을 증진하고 있는 강화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어머니가 유아의 놀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시간이 길고, 놀이성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성이 증진됨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그들의 역할을 놀이치료나 부모 상담 및 교육에 있어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버지의 놀이참여시간이 유의하지 않았던 연구결과에 대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아버지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의 비 일관된 관계를 중재할 가능성이 있는 변인에 대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B.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광주·전남의 유치원 및 유아 보육기관에 재원중인 유아와 그들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다소 편중되어있다. 추후 연구에서 표집 지역을 넓혀 연구 대상을 고르게 한다면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는 좀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부모의 놀이참여시간의 정도에 대하여 묻는 질문을 부모가 유아와 함께 있는 시간과 유아와 함께 상호작용하며 놀이하느 시간으로 분리하여 구체화를 시켜 설문된 자료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또는 놀이시간을 명목척도로 체크하기보다 시간/분 단위로 체크 하도록 설정하여 보다 정확한 놀이시간을 측정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자기보고식의 질문지로서 평정자는 부모였다. 즉 부모는 자신에 대한 설문지를 직접 본인이 작성하였고, 발달단계상 자기보고식 설문문에 대한 참여가 힘든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척도도 부모가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평정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한 편견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유아 놀이성에 대한 물음에는 또래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묻는 질문들이 있어 부모보다 유치원 교사의 의견이나 직접적인 관찰을 통한 평정이 좀 더 객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유아를 교육하고 있는 관련기관의 교사나 담당자에게 평정을 실시하는 것, 연구자의 직접 관찰이나 면담을 통해서 유아 놀이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정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의 비 일관된 관계를 중재해 줄 수 있는 변인에 대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제시하였으나 추후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고, 연구자가 제시한 변인 외에도 조절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추가적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현재 부모 놀이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인 놀이성 척도는 1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최근의 연구에서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반영되고 현재의 시대적 흐름에 맞는 문항으로 구성된 부모 놀이성 척도가 개발될 필요가 있고, 추후 연구자들 또한 과거에 사용된 놀이성 척도보다 최근

에 만들어졌고 신뢰도와 타당성이 입증된 자료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일곱째,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유아 놀이성 측정도구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제작된 유아 놀이성 척도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타당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도 이와 같이 최근에 만들어지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설문척도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놀이성을 각각 따로 살펴본 반면 유아의 성별에 따라서는 살펴지지 않았고, 유아 놀이성 전체만을 연구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 놀이성 요인이 유아 놀이성 하위요인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고 그 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정원 (1993). 아버지의 놀이참여 형태와 유아 자신의 유능성 지각.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 (2013). 예비유아교사의 성격 5요인 및 놀이성과 창의성 간의 관계.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 2013(2), 104-104.
- 김기순, 박인전 (2002). 아버지 양육행동 및 놀이성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한국놀이치료학회지, 5(2), 27-43.
- 김명순, 김길숙, 박찬화 (2012).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33(2), 69-89.
- 김명순, 조항린, 박영림, & 신혜영. (2013). 부모와 유아 자녀의 놀이에 관한 연구: 부모의 놀이신념 및 놀이참여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5(1), 37-53.
- 김미숙 (2001). 교사가 지각한 5세 유아의 놀이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보민 (2005). 놀이 유형별 아버지의 참여 수준과 유아의 놀이성 및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미, 최진아 (2015). 어머니의 놀이성, 유아의 놀이성, 자기조절 능력과 유아의 사회적유능성간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19(2), 39-54.
- 김영희 (1995). 아동의 놀이성 군(群)확인과 관련 변인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희 (2013). 유아 및 어머니의 놀이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4(3), 217-240.
- 김유경 (2002).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지각과 참여행동에 관한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숙 (2013). 유아의 성별과 놀이성 및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18, 91-110.
- 김자영 (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놀이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림 (2009).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 및 놀이성. 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석 (2011). 아버지의 놀이성과 부모 효능감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애 (2015). 부모의 놀이성과 자녀의 놀이성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력 (201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부모효능감이 유아의 놀이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태, 김정림 (2012).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정서지능 및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20(3), 71-32.
- 남은영, 박소은 (2014). 어머니 상위정서양육방식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 및 우울감의 관계 : 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35(6), 153-170.
- 박상선, 서현아, (2014) 유아의 놀이성 및 창의적 성격특성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4), 119-132.
- 박선영 (2010). 유아의 놀이성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선 (2014). 유아의 놀이성과 창의적 성격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희 (1994). 공감, 공감적 이해. 서울, 원미사.
- 박주희, 한석실 (2007). 유아의 놀이성과 가정환경과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7(2), 55-72.
- 박정연, 이성희 (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Montessori 교육연구, 16(1), 40-57.
- 박현숙 (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성과 부모 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80, 153-174.
- 배미경 (2015). 유아의 기질, 아버지의 양육행동, 심리 및 부부특성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병렬 (2015). 조절효과의 개요. 배병렬, 이수영 (편),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분석 (제1판, pp. 6-7). 서울: 도서출판청람.
- 부정민, 김진선 (2009). 부모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 간의 관계.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4(2), 1-15.

- 송은혜 (2008).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및 놀이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일 (1994).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 및 표현적 요소간의 관계. 연구보, 29(1), 1-37.
- 신전희, 차윤희, 김영희 (2008). 어머니의 놀이성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 281-299.
- 심윤희 (2011). 부모의 놀이성 및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호미, 유미숙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기성찰이 자녀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역할만족감과 긍정적 양육태도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8(2), 115-132.
- 양은실, 김광웅 (1998). 놀이치료자의 놀이성과 경력, 태도, 지식, 기술과의 관계.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 47-58.
- 우수경 (2013). 유아의 성 및 놀이성과 어머니의 놀이성에 따른 유아의 정서능력. 한국영유아보육학, 80, 153-174.
- 원희영 (1998). 아버지의 놀이참여 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석사학위논문.
- 윤상인 (2011). 맞벌이 부모가 지각한 놀이신념 및 놀이참여도와 만 2세 영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선 (2011). 부모의 놀이신념과 놀이성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성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 배 (2012).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놀이성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은 (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유아의 놀이성의 조절효과.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아람 (2015). 유아의 기질과 모의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실 (2010). 유아의 놀이성과 리더십과의 관계.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13(1), 33-48.
- 이영환, 이진숙, 조복희 (199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산적 아버지 노릇: 척도

-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2), 79-89.
- 이영환 (2012).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양육 참여시간 비교. 아동과 권리, 16(3), 471-495.
- 이옥자 (1985). 사회계층별 유아놀이에 관한 연구, 부모의 인식 및 역할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김수향, (2016).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사회성과 놀이성의 영향력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1(1), 593-612.
- 이중강 (2004). 어머니 및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생활능력 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하연 (2011).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선, 김소영 (2013). 어머니가 인식한 유아의 놀이성과 자기조절간의 관계, 정서발달양육신념의 매개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3(4), 237-256.
- 장은숙 (2002). 유아의 놀이성에 관한 연구.”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정 (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일우 (2009). 반일제와 종일제 유아의 놀이성과 창의적 행동 특성 간의 관계 생태 유아교육연구, 2(4), 33-55.
- 정미라, 김민정, 이방실 (2015).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양육태도가 유아기 자녀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4(1), 101-122.
- 정연희 (2012). 상담자의 공감능력과 문화적 유사성 지각이 내담자에 대한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주 (2007). 어머니 정서 표현성 및 정서 수용태도가 유아의 성격특성과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옥 (2014).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만족도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9(2), 339-360.
- 조옥미 (2005). 유아기 부모의 놀이성과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숙, 장완수, 김정민, 김향주, 배서영 (2013). 유아의 성에 따른 놀이성과 정서지능의 관계 및 영향력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77, 203-226.

- 최소영, 신혜영 (2015). 유아의 놀이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311-329.
- 최옥현 (2009). 유아의 놀이성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유아교육연구, 11, 111-137.
- 한미현 (2002). 유아의 창의성, 놀이성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태희 (2011). 부모의 놀이성, 양육행동, 창의성이 자녀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희정 (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감능력 및 공격성의 관계, 자기 조절능력의 조절효과.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윤세 (2006).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유능성 및 교사-유아 관계성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1(2), 211-228.
- 허혜경 (2013).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성,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효과분석. 한국보육학회지, 13(2), 83-102.

(국내문헌에서 , 재인용한 외국문헌)

- Aquilar, T. E. (1985). Social and environmental barriers to playfulness. In J. L.Fost & S. Sunderline(Eds), When children play(pp.73-76). Wheaton, *Association for Childhood Education International*.
- Barnett, L. A. (1990). Playfulness, definition, design, and measurement. *Play & Culture*, 3, 319-336.
- Barnett, L. A. (1991). The playful child, Measurement of a Disposition to play. *play& culture*, 4, 51-74.
- Bridges, L. J., Connell, J. P., & Belsky, J. (1988).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nd infant-father interaction in the strange situation: A component process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92 - 100.
- Bruner, L. A. (1974). Children's play. *New Scientist*, 62, 162-128.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s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J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1-19.
- Erikson, E. H. (1972). Play and actuality.

- Glynn, M. A., & Webster, J. (1992). The adult playfulness scale, An initial assessment. *Psychological Report*, 71, 83-103.
- Huizinga, J. (1938). 1950.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element in culture*.
- Isenberg, J., & Quisenberry, N. L. (1988). Play: a necessity for all children. *Childhood Education*, 64(3), 138-145.
- Lieberman, J. N. (1965). *Playfulness: its relationship to imagination and creativity*. New York, Academic Press.
- Lieberman, J. N. (1977). Preschooler's competence with peer, relations with attachment and peer experience. *Child Development*, 48(4), 1277-1287.
- Rogers, C. S., Impara, J. C., Frary, R. B., Harris, T., Meeks, A., Semanic-Lauth, S., & Reynolds, M. (1998). Measuring playfulness: Development of the child behaviors inventory of playfulness. *Play and Culture*, 4, 121-135.
- Rubin, K. H. Fein, G. G., & Vandenberg, B. (1983). Play.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693-774.
- Schafer, C., & Greenberg, R. (1997). Measurement of playfulness, A neglected therapist variable.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2(6), 21-31.

부 록

부 록 1. 부모 놀이성 설문 척도 (놀이참여시간 포함)

부 록 2. 유아 놀이성 설문 척도

**부모의 놀이성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놀이참여시간의 조절효과에 대한 설문지**

부 록 1. 부모 놀이성 설문 척도

안녕하세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부모님의 놀이성이 자녀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님의 자녀놀이에 대한 참여가 적절한 중재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은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할 뿐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이 없으므로, 자신의 평소 생각과 느낌에 가장 가까운 답을 하나만 골라 √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고 특정 기호와 숫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는 **기관관계자나 타인과 공유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익명으로 인용될 것이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응해주신 모든 설문지는 봉투에 동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문항이라도 빠뜨리면 여러분이 응답한 모든 내용이 무효가 되므로 끝까지 한 문항이라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모두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답례로 소정의 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 9월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아동상담전공
 지도교수 : 오 지 현
 연구자 : 임 시 형

※ 다음은 귀하의 일반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표를 하시거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2. 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기타 ()

3. 귀하의 자녀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남 _____ 녀

4. 귀하께서 일주일 평균, 자녀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30분 미만 30~1시간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기타 ()

◎ 다음은 어머니(아버지)의 놀이성에 대한 설문지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한문항도 빠짐없이 √로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끔 약간은 거칠고 익살스럽게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2	나는 내 자신을 항상 고지식한 타입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를 즐겨보는 편이다.				
4	나는 평상시 흥이 많은 편이며, 방안에서 춤추는 것을 즐긴다.				
5	나는 때때로 바보처럼 행동하거나 우스꽝스럽게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6	가끔씩 나는 샤워하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집에서 가볍게 춤을 춘다.				
7	나는 일속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8	나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웃기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				
9	나의 인생관은 비관적이기보다는 낙관적이라고 생각한다.				
10	나는 우울할 때 웃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며, 웃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11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운 상황에서조차도 재미를 찾으려고 애쓴다.				
12	나는 하루동안 가능하면 많이 웃는 것을 좋아한다.				
13	나는 농담이나 장난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14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대체로 내가 먼저 재미있는 말이나 행동을 시작하는 편이다.				
15	나는 월급을 많이 받는 직업보다는 월급이 적더라도 내가 즐길 수 있는 직업을 택하겠다.				
16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 분장을 하는 것은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17	나는 코믹영화 보기를 매우 좋아한다.				
18	나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을 매우 좋아하며 즐긴다.				
19	사람들과 나를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부 록 2. 유아 놀이성 설문 척도

※ 다음은 귀하 자녀의 일반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표를 하시거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여럿일 경우 만5~6세의 유아로 한 명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나 이 : ① 만 5세 ② 만 6세
2. 성 별 : ① 남자 ② 여자

문 항	내 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정 말 그 렇 다
1	역할이나 모습을 꾸며서 행동한다.					
2	다양한 방법으로 사물을 가지고 놀이한다.					
3	하나의 놀이에서 다른 놀이로 확장한다.					
4	놀이를 더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한다.					
5	놀이 시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놀고자 한다.					
6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다른 친구, 성인)을 놀이에 참여시킨다.					
7	놀이를 할 때 하나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여러 다른 역할도 함께 한다.					
8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한다.					
9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한다.					

10	놀이를 할 때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놀이감을 사용한다.					
11	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2	순조롭고 융통성 있게 놀이한다.					
13	놀이 중 놀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어내며 놀이한다.					
14	놀이를 계획한다.					
15	필요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유아와 협상할 수 있다.					
16	다른 유아와 함께하는 놀이에 참여한다.					
17	다른 유아의 놀이를 도와준다.					
18	이미 활동을 시작한 놀이 집단에 합류할 수 있다.					
19	놀이 시 다른 유아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					
20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놀이 상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표정, 언어, 몸짓 등을 통해 단서를 준다.					
21	다른 유아에게 함께 놀자고 말할 수 있다.					
22	다른 유아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23	놀이하는 동안 다른 유아의 말을 경청한다.					
24	소외된 다른 유아를 놀이에 참여시킨다.					
25	다른 아이들과 놀이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26	놀이하는 동안 다른 유아의 참여를 수용한다.					
27	놀이 시 다른 유아와 놀잇감 및 기구를 공유할 수 있다.					
28	놀이하는 동안 즐거워한다.					
29	놀이를 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이야기한다.					
30	놀이를 하면서 미소를 짓거나 소리내어 웃는다.					
31	놀이규칙을 만들어서 다른 유아에게 제시한다.					
32	다른 유아와 규칙을 지키면서 놀이한다.					
33	놀이하는 동안 만족스러워한다.					
34	놀이활동 중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자랑한다.					
35	장난스러운 놀이를 즐긴다.					